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빅에 위치한 Times SLC에 갔었고, 한 건물에 숙소와 교실이 함께 있었다. 선생님들 모두가 활발하고 흥이 많아서 첫만남 때부터 어색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처음 레벨 테스트는 일반적인 토익처럼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반을 나눴다. 그룹이 나뉘지고 하루에 4개의 1:1 수업, 4개의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그룹으로 Multimedia 수업도 하게 된다. 그룹은 광고와 뮤직비디오 각 1개 씩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 분별된 레벨에 따라 같은 책이지만 난이도가 다르다. 시간마다 강의실이 다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 동안 옮겨 다니고, 1:1 수업 때의 강의실은 한 복도에 여러 개의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다른 강의실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얘기도 많이 했다. 보통 스케줄에 따라 선생님들이 배정되지만 수업을 들어보고 안 맞거나 듣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생님이나 스케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액티비티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 마다 다함께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해서 같이 놀러 다니는 것이다.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만약 수영장이나 바

	다를 간다면 꼭 수영복을 챙겨서 노는 것이 좋다. 요트를 빌려서 바다로 다이빙도 할 수 있는 요트 투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투어, 해변과 노을이 최고로 예뻐던 카마얀 비치, 마지막 일정의 리조트 안바야 코브까지 모두 다 즐거웠던 기억이다. 요트 투어는 수빅 베이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 중앙까지 간 후 자유시간을 주는데, 요트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는 것도 재미있고 수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물이 무섭거나 머리가 젖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요트에서 놀고 사진만 찍어도 충분히 재미있다. 마닐라 투어는 다들 기대도 많았지만 걱정이 많았다.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핸드폰을 맘대로 훔쳐간다는 얘기와, 가방 밑을 칼로 찢어서 지갑을 가져간다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았지만 생각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면 무사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걷기도 하고 피곤해서 물 오브 아시아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이 힘들 수 있으니 체력 분배를 잘 했었어야 했다. 카마얀 비치는 선택 액티비티인데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도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다같이 카마얀 비치를 가서 테이블을 빌린 다음 바다에서 노는 게 가장 재미있다. 스노클링과 바나나 보트도 탈 수 있으니 수영복을 꼭 챙겨야 한다. 안바야 코브는 호화로운 여행객 느낌을 제대로 낼 수 있다. 대신 그 안에서 먹는 음료나 음식들은 다 개인 부담이다. 매우 비싼 건 아니지만 리조트 밖 가격의 2배 정도이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여름에 간 게 아니라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지금 내가 겨울의 필리핀에 있는 건지 여름에 대구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하지만 미니 선풍기와 양산으로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샌들 모양 그대로 발등이 탔다. 선크림이 필수고 아예 12시 ~ 2시 정도의 가장 더울 때는 꼭 실내에 들어가 있었다. 물에 들어가 있어도 피부가 탔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필리핀에 처음 가는 거라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항상 다 같이 다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다들 걱정했던 마닐라 투어도 잃어버린 물건 하나 없이 무사히 다녀왔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것 이라고 생각한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후기도 많이 봤고 지갑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

	이 들었지만 늘 그렇듯 자신만 조심하면 된다. 택시나 에프비, 트라이시클 (오토바이와 그 옆에 앉는 좌석이 이어진 교통수단)을 탈 때는 꼭 번호판을 확인하고 바깥을 주시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예상보다 좋았다. 한 방에 3명씩 배정되며 방의 크기는 1 학생사 4인실의 1.5배 정도였다. 방 안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분리되어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 3개와 침대 3개, 조그만 냉장고, 옷장과 옷걸이 4개가 비치되어있었다.. 콘센트는 있으나 꼽을 수 있는 구가 3명이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멀티탭을 가져와서 편하게 사용했다.. 침대 3개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들끼리 얼른 친해져서 침대를 이어 붙이면 서로 편하다. 학교 건물은 5층까지 있고 숙소와 수업을 하는 교실이 함께 있다. 1층에 밥을 먹는 식당과 선생님들의 휴게실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청소는 학생들이 수업을 갔을 때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통을 비워주시고 바닥청소, 이불정리 등을 해주시는데 함부로 물건이 없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정말 딱 청소만 해주시고 정리는 이불만 해주셨다. 나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넣은 봉투를 깜빡하고 그냥 올려두고 수업을 갔는데 그대로 있었고, 따로 잃어버린 물건도 없었다. 밤에 복도에 나방들과 벌, 도마뱀이 많지만 조심하면 아무런 피해는 없다. 개미는 방 안에 음식물만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꼬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따뜻한 기후의 나라기 때문에 벌레는 감안하고 가는 것이 편하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식당은 대부분 한식으로, 학생 때 먹던 급식처럼 이루어졌다. 식판에 부분 자율배식이고 과일이 자주 나와서 좋았다. 해외에 왔기 때문에 추억을 많이 쌓고 싶고 다른 나라 음식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했지만 학교식당도 맛있어서 입맛에 안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외부 식당은 정말로 많고 처음이라면 현지 선생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맛있고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서 부담이 적다. 하지만 몇몇 외부 식당은 한국인이 먹기에는 굉장히 짭 수도 있기 때문에 메뉴 한 두 개만 먼저 시켜보시고 소금을 빼달라고 주문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물은 꼭 사먹거나 학교 내의 정수기에서 마셔야 안전하다. 한국처

	럼 외부 식당에서 함부로 물을 들이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앓이를 하며 다음 날 수업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장이 예민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물은 꼭 유의해서 마셔야 했다. 몸이 아프면 액티비티 활동할 때나 수업할 때 힘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한 번 배앓이를 하고 나면 외부 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챙기는 게 좋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4층에 기숙사 방과 수업하는 교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통학하지 않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수업을 가면 된다. 액티비티나 따로 외부로 놀러나갈 땐 학교 건물 2층으로 나가면 출입과 보안을 책임지는 가드에게 학생증을 제출하고 나갈 수 있다. 주로 에프비나 택시를 타고 하버 포인트라는 큰 시내로 나갔다. 에프비는 조그만 트럭 같이 생겼고 여러 명이 함께 탄다. 택시는 한국의 택시와 다르게 일반 승합차처럼 생겨서 처음에는 낯설었다. 에프비를 처음 탈 때는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매연이나 덜컹거리는 차 때문에 놀랄 수 도 있지만 일주일이면 다들 적응이 돼서 현지인처럼 잘 타고 다닌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면 주변 풍경을 구경하며 걸어가는 것도 추천한다. 필리핀은 밤에 별이 정말 많고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밤에 학교 주변을 산책하면서 별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1,075,400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을 위한 사비	436,400	미리 환전 후 사용
합계	1,075,4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

여권 유효기간과 발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 놓아야 걱정이 안 되고 편하다. 그리고 노트북은 평소에는 필요도 없고 다들 나가서 노느라 안 쓰지만 Multimedia 수업 때 제출할 영상들을 편집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편이 좋다.

돈은 너무 많이 가져가도 좋지 않다. 마지막 자유 시간에 남은 모든 돈을 다 털어 선물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수화물 무게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남은 필리핀돈은 한국에서 쓸 수 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필리핀 돈을 다 쓰고 오는 게 좋다.

짐을 챙길 때 지퍼 백을 넉넉히 챙기는 게 좋다. 방에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옷이나 따로 중요한 물건들은 지퍼 백에 넣어서 잠궤 보관하고 기숙사 내에도 수영장이 있고, 물놀이가 많은 액티비티도 있기 때문에 젖은 옷을 편하게 가져올 때도 좋다.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면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방수 팩도 좋다. 짐은 많이 챙길 필요가 전혀 없고 비누, 바디 워시, 샴푸, 슬리퍼 등은 가서 사는 게 더 싸고 편하고 올 때 버리고 오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

필리핀에 가서 해산물을 많이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신선하지 않은지, 신선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해산물을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많았다. 물은 꼭 사서 마시거나 정수기 물을 따로 텀블러에 받아 가져가는 게 좋다.

바닷가나 수빅 베이에 가면 아이들이 따라 붙으며 구걸을 하거나 인사를 해주는 데 대꾸를 해주면 계속 달라붙어 구걸하기 때문에 불쌍하더라도 아예 무시하는게 낫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출국 당일 날까지 걱정되고 불안해서 계속 떨었는데 필리핀에서의 첫 날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간 한국인 친구들 모두 다 활발하고 좋은 성격에, 다들 착해서 한 달 동안 즐거운 추억만 쌓고 왔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꿈같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이 너무 아쉬워서 필리핀에서의 출국 날이 다가올수록 우울해질 정도였습니다.

원래 알던 친구들이 없거나, 혼자 간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잊지 못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 힘들었던 기억보다 행복해서 웃느라 얼굴이 아파왔던 추억이 훨씬 많았습니다.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도 다들 밝고 에너지가 넘쳐 학생들과 잘 어울리십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20대의 또래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즐겁습니다. 마지막 수업 때는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선생님들 선물을 사고 편지도 써서 드립니다. 그만큼 정도 많고 착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겨우 한 달 갔다 온다고 영어가 얼마나 늘겠냐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고 8시간씩 영어 회화 연습을 현지인들과 하면 확실히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말하고, 지나가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고, 좋은 사람들

과 즐겁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도 많고 한 달 뿐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 해서 노느라 성격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활발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언제나 밝고 활발해서 다 같이 좋은 에너지만 만들며 함께 지냈습니다.

엄청 큰 바퀴벌레도, 밤마다 창문에 붙어있던 여러 나방과 벌도 무서웠지만 다 같이 수영장에서 놀던 기억과 한 밤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수많은 별들, 처음으로 맞이하는 춥지 않은 새해와 끝없었던 볼꽃놀이는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행복했기 때문에 전혀 필리핀에 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다시 와서 더 즐겁게 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웠던 기억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졸업식 때도 울지 않으려고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정말 즐겁고 좋아했던 1:1 선생님의 영상편지 때문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많이 찍으려고 예쁘게 꾸미고 갔는데 눈물 때문에 소용이 없어져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선생님들이었기에 눈물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 배경	마닐라 투어



바비큐 파티



피자 가게 라이브 밴드



새해 해변가 불꽃놀이

카마얀 비치